



아가의 반전(反轉)의 신학*

이유미(루터대학교)

1. 서론

구약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는 바로 아가이다. 이 작은 책이 오랫동안 학자들에게 풀기 힘든 수수께끼처럼 여겨진 이유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가는 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¹⁾ 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777.)

1) 우리말 성경은 8장 6절을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아웨의 불과 같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다. '아웨의 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헤베트야**(*šalhebetyāh*)이다. 구약성경에서 이 형태는 오직 본 절에서만 등장하지만, 동일하게 불, 화염의 의미의 **살헤베트**(*šalhebet*)는 몇 군데에 등장한다(겔 21:3; 욥 15:30). 우리말 성경은 바로 이 살헤베트에 붙은 접미사 **야**(*yāh*)가 붙은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아웨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네 개의 자음(YHWH) 중 일부이며, 그렇기에 이를 아웨의 불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접미사는 구약성경에서 드물지만 과장된 의미나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을 향한 어떠한 묘사나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책은 신앙의 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성애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적인 성애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구약성경의 지배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아가는 나머지 책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또한 구약성경에서 등장하는 신학적인 주제도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시는 오로지 인간 남녀의 사랑,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구체적인 육체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가가 전혀 새로운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들로 가득하다. 아가에서 등장하는 자연과 관련된 모티브와 인간과 관련된 모티브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모티브들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나머지 책들이 자연-인류-하나님이라는 삼각구도를 적용하여 신학을 형성해 왔다면, 아가는 자연-인류-사랑이라는 구도로 신적 요소를 대체하여 나타난다.²⁾ 그러므로 아가는 전통적인 어휘와 표현을 빌려와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내는 독특한 책이다.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책의 장르와 목적, 그리고 정경성에 대한 문제와 씨름해 왔다.

이렇듯 아가가 가지는 독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첫 번째 방식은 비문자적 방식(non-literal approach)으로, 알레고리로 아가를 해석한다. 이러한 방식은 아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다보니, 자의적이고 비역사적인 해석이 주를 이룬다. 유대교 전통은 아가를 아웨

한다(시 118:5; 렘 2:31). 아가의 나머지 부분에서 신의 이름이나 신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갑작스러운 신의 등장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의미의 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본 절은 불과 관련된 단어(*rešeph*, 'ēš, šalhebetāh)이 함께 나열되어 있어서, 점차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인 **살헤베티아**는 보다 과장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본 저자가 제안하는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 불길은 불의 화염, 강력한 불길이다.'

2) D. Grossberg, "Nature, Humanity, and Love in Song of Songs," *Interpretation* (2005), 230.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대화로 이해하며, 이러한 비유적 해석은 더 나아가 아가에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찾는다.³⁾ 기독교 신학전통 속에서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아가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였다. 유대교 해석이 아가를 통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순간인 출애굽을 보았다면, 오리게네스(Origenes) 이후 기독교 해석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기독교적인 구원의 순간을 아가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해석은 텍스트가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 이면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그 해석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또한 인간의 성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아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노골적인 인간의 사랑의 묘사에 대해서는 신학적 메시지로 얼버무려 버리고 말았다.

두 번째 해석방식은 문자적 방식(literal approach)으로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방식이다. 이러한 해석방식 중 하나는 바로 아가를 희곡(drama)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매우 초기부터 발견된다. 일부 고대 라틴어 사본과 몇몇 LXX 사본(Codex Sinaiticus와 Codex Alexandrinus)이 난외주로 아가의 대화부분에 ‘신부’, ‘신랑’, ‘처녀들’ 같은 표식을 해 놓았다. 이는 아마도 그리스 희곡에서 대사를 표기했던 방식을 모델로 한 초기 드라마적 해석을 반

3) 서기 7세기경의 것으로 알려진 아람어역 성경 탈굼은 아가를 출애굽부터 미래의 종말론적 왕국으로까지 연대적 순서로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① 1장 2-4절 프롤로그: 여는 찬양; ② 1장 5절-3장 6절 출애굽, 시내산, 정복; ③ 3장 7절-5장 1절 초기 왕국과 성전건축; ④ 5장 2절-6장 1절 이스라엘의 배교, 바빌로니아 포로기, 회개; ⑤ 6장 2절-7장 14절 제2성전 시대, 디아스포라; ⑥ 8장 1-10절 종말론적 사건들과 메시아적 왕국; ⑦ 8장 11-14절 에필로그: 닫는 기도. G. H. Johnston, "The Enigmatic Genre and Structure of the Song of Songs, Part 2," *Bibliotheca Sacra* 166 (2009): 164; 래리 L. 라이크 지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아유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61-170.

영하고 있는 것이다.⁴⁾ 아가를 희곡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19세기에도 다시금 제시되는데, 이는 1500년 이상 아가 해석을 지배했던 알레고리 해석에 대한 도전으로서 등장하였다. 아가를 희곡의 장르로 이해하는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과는 달리 이 책이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기본적으로 일관된 줄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이 방식은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살리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곡이라는 장르는 로마시대가 되어서야 소개되었다. 또한 아가가 유대인 청중 앞에서 시연되던 희곡으로 기록되었을 것 같지도 않다. 헤롯왕이 팔레스틴에 최초의 극장을 건축했을 때,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드라마가 이교도의 종교 축제의 일부로 행해졌으며, 형상들에 대한 금지조항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⁵⁾ 헬라화 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극장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유대인이 희곡을 쓰거나 제작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가의 문자적 해석과 관련한 또 다른 해석은 19-20세기에 걸쳐 진행된 중동지방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 활발해졌다. 고고학적 작업을 통해 수많은 기록 문서들을 발견해 내었고, 이러한 발견은 성경과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아가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우가릿에서 발견되는 사랑시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발견을 통해 학자들은 좀더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랑시는 고대 중동 세계에서 공통적인 장르이며, 주제, 비유적 표현, 묘사에서 놀라울 정도로 아가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⁶⁾ 이러한 견해는 아가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다는 여러 사랑시들을

4) G. H. Johnston, "The Enigmatic Genre and Structure of the Song of Songs, Part 1," *Bibliotheca Sacra* 166 (2009): 37-38.

5) *Ibid.*, 41.

6) J. B. White, *A Study of the Language of Love in the Song of Songs and Ancient Egyptian Love Poetry* (Missoula, MT: Scholars, 1978), pp. 148-153; M. V.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모아 편집해 놓은 명시선집(anthology)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줄거리나 신학을 찾기 보다는 그 시들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역시 아가가 어떻게 신앙의 책으로 생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래 세속적인 목적과 의도로 이 시가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언제, 무엇을 계기로 신앙의 책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진 채 남아 있다.

본 연구 역시도 아가의 본질적 성격과 장르, 목적 그리고 구약성경 속에서의 아가의 특징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아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내용과 이 책이 구약성경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각각 간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사랑의 내용과 정경화로 이어지는 신학적 의미는 이 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가는 본래 세속적인 내용을 지니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책이다. 이 시는 분명히 인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이며, 동시에 가장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노래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가의 구조분석으로 이 책이 통일성을 지닌 작품이며,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시들을 모아 놓은 시선집이기 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 하나의 문학임을 제시한다. 이후,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과 상호 비교하여, 아가의 저자가 어떻게 전통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여 반전의 신학을 드러내는 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반전을 통한 지혜를 제시하는 지혜문학임을 밝힌다.

Egyptian Love Song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M. Nissinen, "Love Lyrics of Nabū and Tašmetu: An Assyrian Song of Songs?" in *Und Mose schrieb dieses Lied auf: Studien Zum Alten Testament und zum alten Orient: Festschrift für Oswald Loretz zur Vollendung seines 70. M. Dietrich and I. Kittsieper, eds., (Münster: Ugarit-Verlag, 1998), pp. 585-634; K.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2005), pp. 127-143.

2. 한 편의 사랑시

중동 세계의 고고학 발굴은 아가를 말 그대로 사랑시 문헌 즉 연가(戀歌)와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아가를 사랑시로 보는 견해는 또한 이 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즉, 아가가 일련의 개별 사랑시들을 모아 놓은 시선집(anthology)인지, 통일성을 지닌 책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아가가 시선집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⁷⁾은 이 시에서 나타나는 장면이나, 화자, 주제 등이 비약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냐, 내용적으로도 하나의 일관된 줄거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아가에서 드러난 주제와 비유적 표현에서의 많은 유사점들과 다양한 부분에서의 반복 어구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것이 이 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기보다는 사랑시가 가지고 있는 상투적인 표현방식 때문에 생긴 유사점이라고 이해한다. 그렇기에 아가에서는 일관된 하나의 줄거리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시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표현방식 때문에 우연히 생긴 유사점이라고 하기에 아가는 상당히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구성하고 있는 개별시를 구분할 때에 주제의 변화라든가 분위기의 변화와 같은 것을 제시하지만, 이는 아가가 산문 내러티브가 아닌 시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오히려 주제의 변화나 분위기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한 작품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아가를 통해서 일관된 줄거리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 아가의 주제와 구조가 일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문학적 장치는 바로 후렴(refrain)이다. 후렴은 기본적으로 반복이라는 기

7) M. Falk, *Love Lyrics in the Bible* (Sheffield: Almond, 1982); O. Keel,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T. Longman III, *Song of Song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2001).

술을 기본으로 한다.⁸⁾ 이 반복을 통해서 시인은 청중들로 하여금 다시 듣게 하여 내용을 강조할 수 있으며, 내용 연결에 도움을 주어 시의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20세기 동안 학자들은 히브리 시에서 후렴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별히 시편에서 이른바 후렴구에 관심을 가졌던 최근 연구들은 후렴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다주었다.⁹⁾ 후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구절이 그대로 반복되는 형태이다. 둘째, 구절이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서 반복되는 형태이다. 이는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축소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며, 단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후렴구는 다양한 위치에서 등장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연을 끝맺는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후렴은 닫는 후렴(closing refrain)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또한 연을 시작하는 위치에 있는 후렴도 있다. 이러한 후렴은 여는 후렴(opening refrain)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때로는 후렴이 연 중간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연 자체의 내용에 후렴이 흡수된다. 아가는 후렴구를 시 전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기 다른 후렴이 함께 쓰이는 복합후렴구 형태도 보이고 있다. 이 후렴구는 아가의 전체적인 구조적 틀을 살피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아가의 구조적인 통일성을 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아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통일성 있게 강조하며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아가에 등장하는 후렴구들은 다음과 같다: 포옹의 후렴(2:6; 8:3), 간

8) W.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SOT Supp. 26 (Sheffield: JSOT Press, 1984), 274.

9) P. van der Lugt,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Refrains in Job 28," in *The Structural Analysis of Biblical and Canaanite Poetry*, eds. W. van der Meer and J. C. de Moor, JSOT Supplement (Sheffield: JSOT Press, 1988), 265-93; P. Raabe, *Psalms Structures: A Study of Psalms with Refrains*, JSOT Supplement (Sheffield: JSOT Press, 1990).

칭의 후렴(2:7; 3:5; 5:8; 8:4), 상호 소유의 후렴(2:16; 6:3; 7:10), 수사슴의 후렴 (2:17; 8:14), 질문의 후렴 (3:6; 6:10; 8:5). 아가에서 포옹의 후렴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복합후렴으로 등장한다. 이 포옹의 후렴은 항상 간칭의 후렴과 함께 등장한다(2:6-7; 8:3-4). 간칭의 후렴은 아가의 전체 구조에서 한 연을 마무리 할 때에 사용된 후렴이다. 이는 각각 단락 B의 1연, C의 1연, C'의 1연, B'의 1연을 마무리 한다(아래 도표 참조). 상호 소유의 후렴 경우에도 역시 하나의 연 끝을 장식하는 후렴이다. 세 개의 예 중에서 2장 16절은 수사슴의 후렴(2:17)과 함께 복합후렴으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상호소유의 후렴은 각각 단락 B의 2연, C'의 2연과 3연을 마무리한다. 수사슴의 후렴은 각각 B단락의 2연과 A'의 2연을 마무리한다. 질문의 후렴은 연을 마무리하는 후렴구가 아니라 시작하거나 중간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6장 10절의 질문의 후렴구가 연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3장 6절과 8장 5장은 각각 단락 C의 2연, B'의 2연을 시작한다. 같은 후렴의 형태는 아니지만, C'의 2연을 시작하는 5장 9절도 의문문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아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나타낸다.

1:1 표제

A.1:2-6 프롤로그: 합당한 사랑

1연. 1:2-4

2연. 1:5-6

B. 1:7-2:17 랑데부의 열망

1연. 1:7-2:7

2연. 2:8-17

C. 3:1-5:1 절정

1연. 3:1-5

2연. 3:6-11

3연. 4:1-5:1

C`. 5:2-7:10 절정

1연. 5:2-8

2연. 5:9-6:3

3연. 6:4-7:10

B`. 7:11-8:7 랑데부예의 초대와 사랑의 찬가

1연. 7:11-8:4

2연. 8:5-7

A`. 8:8-14 에필로그: 완전한 사랑

1연. 8:8-12

2연. 8:13-14

아가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교차대구법(chiasmus)의 모습을 지닌다. 각각의 단락은 서로 교차하는 단락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단락 A와 A'는 각각 시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할을 하며, 연인이 서로 사랑하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변증으로 시를 열고, 합당한 존재의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며 랑데부예에 대한 열망으로 끝을 맺는다. 또한 이 두 단락을 연결해 주는 모티브가 등장한다. 이 두 단락에서는 여인의 형제들이 등장한다. 단락 A에서 등장한 형제들은 다시 언급되지 않다가 단락 A'에 가서야 등장한다. 단락 A에서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언급 속에는 형제들이 왜 누이에게 화가 났는지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 반면 단락 A'에서 드디어 침묵하고 있던 형제들이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또한 단락 A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모티브는 다시금 A'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단락 B에서는 절절한 표현으로 서로를 갈구하고 만나기를 열망하는 랑데부예의 노래를 부른다. 이에 대구를 이루는 B'에서 역시 사랑의 결실

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랑하는 이를 초대하며 랑데부의 열망을 표현한다. 이 랑데부의 열망은 사랑의 찬가로 이어진다. 이 두 단락은 또한 랑데부가 완성되는 시기인 봄을 상징하는 상징어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교차대구법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단락 C와 C'는 다른 단락과는 달리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단락은 동일한 구조를 지니는데, 제 1연은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3:1-5 / 5:2-8), 제 2연은 질문으로 시작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노래이며(3:6-11 / 5:9-6:3), 제 3연은 아름다운 연인에 대한 각각 두 개의 찬미가 이어진다(4:1-5:1 / 6:4-7:10). 이렇듯 구조적으로 잘 짜인 모습만 보더라도 아가는 단순히 사랑시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보다는 명백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구성된 한 편의 사랑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본 논문은 저자가 자신의 저작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저자는 전통적인 사랑의 모티브를 전혀 다른 반전적인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3. 전통과 반전

분명히 아가는 인간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성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나머지 정경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아가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를 사용한다.

1) 전통적 모티브

구약성경은 분명히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약성경에서 남녀의 관계는 동등

한 위치에서가 아닌 분명한 상하 관계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사랑과 성에 대한 사고가 구약성경을 지배하고 있다. 구약성경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이며, 또한 정절과 순결에 대한 남성 중심의 요구가 여성에게 부과된다. 남성은 성적으로 다른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율성을 지닌 반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나 형제들의 관리 하에 순결을 유지해야 하며, 결혼 이후에는 자신의 남편에게만 헌신하고 복종해야 했다. 이러한 가부장적 시스템 안에서 남성은 성적인 행위를 주도하는 자이며, 여성은 남성의 주도로 그의 자손을 낳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여성은 정당하고 올바른 혈통을 잇기 위해서 절제와 금욕 그리고 정절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은 음녀로 취급받았다(잠 7장; 2:16-19; 5:3-6; 6:24-35; 22:14; 23:27-28).¹⁰⁾ 이는 더 나아가 여성이 죄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성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류가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죄에 대가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가부장적인 성개념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율법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17:17). 여성은 남성을 미혹케 하여 죄짓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외경의 지혜문학 중 하나인 집회서 역시도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집 25:24)며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죄의 근원을 여성에게서 찾았다. 여성과 죄인식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10) 물론 창세기 38장의 다말이나 롯과 같은 여성들이 성적 주도권을 가지고 남성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본문은 이에 대해서 다말이나 롯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는 왕가의 혈통을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필요가 있다. 다말이나 롯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남성의 왕가의 혈통을 이어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D. Carr, "Gender and the Shaping of Desire in the Song of Songs and Its Interpretation," *JBL* 119/2 (2000), 238.

여성의 헌신은 남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 반대로 여성의 배신은 그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 이스라엘의 주요한 신학적 맥락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적 시스템이 사용된다. 신명기 6장 4-5절의 쉘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갖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웨는 ‘질투하는 자’와 같은 연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출 34:14-15; 민 5:14, 29, 30; 15:39; 신 31:16; 사 2:17; 8:27, 33).

남녀 관계를 신학적인 모티브로 사용한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기원전 8세기 중반 북왕국에 예언 활동을 했던 호세아는 남녀 관계의 모티브를 신학적 비유로 사용하고 공식화했던 최초의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생활을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결혼비유를 통해서 남편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내는 인간에게 비유되어 아내의 간음(죄)으로 인한 신의 분노와 고통을 설명한다. 호세아는 아가와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성적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가와 달리 이는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한다. 이러한 모티브는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배신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사 54:4-8; 62:4-5; 렘 2:1-3:13; 겔 16, 23장).

인간의 사랑과 성의 모티브는 구약성경에서 신학화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 욕망에 가득한 성에 대해서는 죄악시하며 비판하는 경향을 지닌다. 인간의 육체, 특별히 여성의 육체를 드러내는 것은 음란함을 대변하는 비유적 표현이 되었다.

2) 반전의 모티브

아가는 전통적인 신학적 모티브와는 전혀 다른 사랑과 성을 그리고 있다. 아가의 시인은 전통적인 사랑과 성 개념을 세속적으로 실체화하면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신학화 작업’을 꾀한다. 즉 기존의 신학에 문

제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사랑

먼저 아가에서 ‘사랑’은 전적으로 육체적이고 에로스적 사랑을 의미한다. 이는 아가에서 ‘사랑’과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아가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과 관련한 단어는 두 가지이다: **도드**(*dód*), **아하바**(*’ahabā*). **도드**는 구약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아버지의 형제, 즉 숙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둘째는 복수 형태 **도딤**(*dódím*)으로 주로 사용되며, ‘사랑’을 의미한다. 셋째는 연인, 애인을 일컫는다. 아가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아가에서 여성이 자신의 연인을 부를 때에 **도드**¹¹⁾가 사용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랑을 의미할 때에는 **도딤**¹²⁾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수 형태의 **도딤**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랑을 뜻하기 보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이 단어는 에스겔 16장 8절, 23장 17절, 잠언 7장 18절에서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과 연관하여 언급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가에서 남자 연인을 **도드**라고 칭하는 것은 곧, 정신적인 사랑이나 넓은 의미에서 사랑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기 보다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 사랑의 욕망을 담지하고 있는 호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겔과 잠언에서 **도드**로 언급된 육체적 사랑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반면, 아가에서는 전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아하바**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진다.

아하바는 그야말로 넓은 의미의 ‘사랑’을 뜻한다.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들 사이의 우애나, 개인의 깊은 친밀감, 그리고 더 나아가

11) 아가 1장 13-14, 16절; 2장 3, 8-10, 16-17절; 4장 16절; 5장 2, 4-10, 16절; 6장 1-3절; 7장 10-12, 14절; 8장 5, 14절.

12) 아가 1장 2, 4절; 4장 10절; 5장 1절; 7장 13절.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표현하는 단어이다. 아가는 이 단어를 명사와 동사 형태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¹³⁾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아하바**가 아가에서 **도드**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추상적인 의미의 사랑 안에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가에서 육체적 사랑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추상적인 의미의 사랑의 일부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다. 에로스적 사랑에 대해 말하기 꺼려하는 전통에 대해 아가는 육체적 사랑(도드)도 역시 사랑(아하바)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가는 전통적인 종교의 개념에 가려져 있던 성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

(2) 육체

에로스적 사랑의 해방은 곧 인간 육체에 대한 표현에도 자유를 선사하였다. 아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의 육체를 표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히 아가는 **와츠프(waṣf)**라는 독특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와츠프**는 ‘묘사’(description)를 뜻하는 아랍어로, 아랍의 결혼식에 연인의 외모를 상세하게 묘사하던 시형식에서 장르의 이름을 가져온 것이다. 아가에서 이 장르로 분류하는 부분은 4장 1-7절, 5장 10-16절, 6장 4-7절, 7장 1-10절이며, 남성의 몸을 묘사하는 5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며 찬양하고 있다. 본래 **와츠프** 연구는 성서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나, 학자들은 아가에서의 이와 유사한 형식의 찬미시를 **와츠프** 장르로 분류하였다.¹⁴⁾ 또한 학자

13) 명사: 아가 2장 4-5, 7절; 3장 5, 10절; 5장 8절; 7장 7절; 8장 4, 6-7(2)절. 동사: 아가 1장 3-4, 7절; 3장 1-4절.

14) 양식비평적 연구에서 아가의 **와츠프** 사용을 근거로 이 책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제시되었다. 베츠슈타인은 아가와 시리아의 결혼 관습 사이의 특정한 유사점들을 찾아 내었다. 베츠슈타인이 제시하는 유사점에는 7일간의 결혼식(창 29:27; 사 14:12, 17)과 신랑 혹은 신부의 신체 부분을 서술적으로 목록화 하는 방식(**와츠프**)이 있다. J. G. Wetzstein, "Die syrische Dreschtafel," Zeitschrift für Ethnologie 5 (1873), 270-302, quoted in D. C. Fredericks and D.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0), 285. 아가가 이스라엘 결혼예식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등

들은 아가의 육체 묘사를 고대 이집트 사랑시와 수메르의 거룩한 결혼 제의시와 비교하기도 하였다.¹⁵⁾ 분명한 것은 연인의 육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랑시에서 매우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구약성경 안에서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어색한 묘사라는 점이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구약성경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예; 삼상 9:2), 이러한 예들은 그 아름다움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가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잠언의 경우,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 보다는 아름다움은 유혹을 돕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잠 6:25; 31:30). 반면 아가에서는 인물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단순히 추상적 의미의 형용사로 설명하기 보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비유들로 구체화하고 있다. 시인은 육체의 각 부분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비유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눈앞에 아름다운 모습의 여성과 남성을 그려낼 수 있게 하였다. 시인이 구약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은 육체의 상세 묘사를 사용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장한다. M. H. Pope,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77), 141-144;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231-232. 사랑 노래가 오로지 결혼예식에서만 사용될 이유는 없으며, 또한 아가의 연인들은 신랑, 신부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결혼을 위한 노래이기 보다는 서로 만나기를 열망하는 낭대부의 노래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와초프**로 전체 아가의 삶의 자리를 논하기는 어렵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 노래를 위해서 **와초프**는 한 부분으로서 차용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 중에는 아가를 넘어서서 구약성경 속에서 **와초프** 장르를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D. Bernat, "Biblical *Wafs* Beyond Song of Songs," *JSOT* 28.3 (2004), 327-349.

- 15)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227-249; Keel, *The Song of Songs*, 20-24; Pope, *Song of Songs*, 69-85; S. N. Kramer, *The Sacred Marriage Rite: Aspects of Faith, Myth, and Ritual in Ancient Sum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9), 89-90; M. Nissinen, "Love Lyrics of Nabû and Tāsmetu: An Assyrian Song of Songs?" in *Und Mose schrieb dieses Lied auf': Studien zum Alten Testament und zum alten Orient: Festschrift für Oswald Loretz zur Vollendung seines 70. Lebensjahres mit Beiträgen von Freunden, Schülern und Kollegen*, eds M. Dietrich and I. Kottsieper, AOAT 250 (Münster: Ugarit-Verlag, 1998), 585-634, esp. 597. 제의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풍요와 관련하여 신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모티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요제와 관련하여 사랑시가 사용된 것이지, 사랑시가 모두 풍요제와 연관되었다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풍요제와 연관된 사랑시와 아가의 사랑시가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모두 '사랑시' 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아가가 풍요제의 중 하나인 거룩한 결혼 제의와 연관이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있다. 게다가 시인은 시의 절정부분인 단락 C와 C'에만 집중적으로 **와츠프로**를 등장시키고 있다. 시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엇 때문에 이토록 생소하고 꺼리는 묘사를 넣었을까?

구약성경 속에서 **와츠프로**로 분류할 수 있는 작은 구절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첫 번째 예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골리앗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 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매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는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묘사하고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와츠프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힘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이는 골리앗이 입고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들을 통해서 시각화된다. 곧 **와츠프로**는 그 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질, 본질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아가의 **와츠프로**는 여성과 남성의 옷이나 액세서리들을 통한 시각화가 아닌 그 몸 자체에 대한 시각화에 초점이 있다. 시인의 시선을 따라 함께 움직이다 보면 아름다운 자신의 여성과 남성을 그릴 수 있다. 이 때 이는 창세기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처음 했던 행위는 바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육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개념을 드러낸다. 즉, 인간의 육체는 그 자체로 이해되기 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과 함께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아가의 시인은 인간의 육체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전통을 넘어선다. 육체는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것

이 도덕적 미혹의 도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움 자체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이 아름다움은 성개념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다. 여성에 대한 **와츠프**와 남성의 **와츠프**는 성을 구분하여 묘사하지 않는다.¹⁶⁾ 여성과 남성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한다(비둘기, 레바논, 백합화 등). 아가의 **와츠프**는 연인이 서로의 육체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아가에서 사랑은 도덕과 윤리적 덕목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근본적인 감정으로서 이해된다. 이는 아담이 여자에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 준 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창 2:23-24). 곧 사랑은 창조 질서를 근본에 담고 있는 감정이다.

(3) 성(性)

아가가 더욱 구약성경의 다른 책과 차별화 되는 것은 이렇듯 노골적인 성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의 주도권을 남성이 아닌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가의 처음과 시작은 여성의 노래로 마무리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이 전체 아가의 사랑 노래를 주도하고 있다. 입맞춤을 요구하는 것도, 집과 침실로 초대하는 것도 모두 여성이다. 이러한 요구와 초대에 여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한다. 반면 남성은 아가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아가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 사랑 노래가 여성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게 되었다.¹⁷⁾ 그러

16) C. Meyers, “Gender Imagery in the Song of Songs,” in *A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ed. A. Brenn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97-212.

17) 아가가 여성저자의 작품이라는 생각은 1957년 고이텐(S. D. Goitein)이 처음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번역하여 다시 실은 것이 바로 S. D. Goitein, “The Song of Songs: A Female Composition,” in *A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A. Brenner,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58-66 이다. 고이텐은 “아가는 한 젊은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저작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물론 고이텐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 아가의 저자가 남성이기보다는 여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밖의 여성저자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1, 58-97 André LaCocque, *Romance, She Wrote: A Hermeneutical Essay on Song of Songs* (Harrisburg,

나 여성 저자에 대한 주장은 많은 비판에 당면하게 된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난점이다.¹⁸⁾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꼭 저자가 여자일 필요는 없다. 작품을 보고 저자의 성향이나 목적은 추정할 수 있지만, 저자의 성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우리가 아가의 이러한 여성 편향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은 저자의 성이 아니라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성’이다. 아가의 저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분명한 것은 구약성경의 지배적인 성개념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아가의 여성은 단순히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여성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등장인물들과의 논쟁도 주도한다. 그 인물들과의 논쟁에는 남성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여성이고, 또한 형제들과 논쟁하는 것 역시도 여성이다. 또한 적개심을 보이는 도시의 파수꾼에게 굴하지 않고 남성의 행방에 대해 묻는 것도 여성이다. 남성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초점을 두고 여성에 집중하며 아가에서 등장하는 제3자와의 대화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 반면 여성은 모든 전통적인 편견에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항변하는 존재이다. 왜 시인은 이러한 성의 반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시인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완전한 반전을 통해서 여성 상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의 시각이나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능동성과 수동성의 반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전통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39–53; Jean-Jacques Lavoie, "Woman in the Song of Songs," in *Woman Also Journeyed With Him: Feminist Perspectives in the Bible*, G. Caron ed.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75–81; C. E. Walsh, *Exquisite Desire: Religion, the Erotic, and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2000), 139.

18) D. J. A. Clines *Interested Parties: The Ideology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Hebrew Bible*, JSOT Sup. series 20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99.

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상하 구도의 서열 관계(hierarchy)를 전혀 전제하고 있지 않다. 아가 속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어떠한 권위도 작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를 열렬히 열망하고 있다.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서열 관계에 대한 의도적 부정은 아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4) 권위

아가의 시인은 의도적으로 인간 사이의 서열 관계를 부정한다. 이는 가부장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존재가 아가에서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아가에는 두 존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곧 아버지와 야웨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딸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있었다. 특별히 딸의 성(sexuality)과 관련해서는 집안의 남성의 절대적인 감시 하에 두었다. 그러나 아가에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1:6; 3:4, 11; 6:9; 8:1, 2, 5). 또한 형제들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1:6).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형제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구약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한다(창 27:29; 43:29; 시 50:20; 69:8). 실제로 이 표현은 일부다처제를 지닌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경은 아버지의 아들/딸과 어머니의 아들/딸을 구분하여 표현한다(창 20:12; 레 18:9; 20:17; 겔 22:11). 이는 각각 이복형제와 동복형제를 구분할 때에 사용된다. 비록 이 표현이 가부장적 뿌리를 지닌 것일지라도, 아가 시인은 여주인공과 그 형제들의 관계를 부계가 아닌 모계로 연관시키면서 그녀와 형제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 같은 어머니 덕분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⁹⁾ 이러한 방식으로 형제들의 권위보다 어머니의 권위를

19) J. M. Munro, *Spikenard and Saffron: The Imagery of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더 강조해 주고 있다. 또한 아가에서 어머니의 집은 연인의 랑데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해된다. 어머니 집에서 이루어지는 연인의 랑데부는 잉태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버지의 집이 권위와 서열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어머니의 집은 생명이 생성되는 곳이다.

아가에는 등장하지 않는 또 하나의 존재는 바로 야웨 하나님이다.²⁰⁾ 신의 이름뿐 아니라 신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아가의 특징 때문에 이 책의 정경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 되었다. 과연 아가는 본래 비종교적 목적으로 기록된 사랑시인가? 아가가 비종교적 색채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저자가 매우 의도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감추려고 했다는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단서 중 하나는 바로 간청의 후렴구(2:7; 3:5; 5:8; 8:4)로 불리는 문장에서 나타난다. 이 후렴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맹세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맹세하다’라는 동사로 시작된 문장은 조금 이상한 맹세 공식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맹세는 신들의 이름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본 절은 동물들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맹세에서 놀랍게도 동물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별칭(epithet)과 유사한 소리를 만들어 낸다. 우리말 성경에서 노루로 번역된 히브리어 **츠바오트**(*šebā'ôt*)는 ‘만군의 주’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별칭 **츠바오트**(*šebā'ôt*)와 발음뿐 아니라 철자까지 동일하다. 수컷 노루(**츠비아** *šbiyyāh*)가 아닌 암컷 노루를 가리키는 여성형 **츠바오트**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시인의 의도적인 어휘선택임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들사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들과 사슴을 함께 사용하여 **아엘로트 핫사데**(*'ayelôt hašādeh*)이며, 이는 ‘전능자 하나님’에 해당하는 별칭 **엘 사다이**(*'ēl-šadday*)와

Academic Press, 1995), 69.

20) 우리말 성경(개정개역)은 8장 6절을 ‘사랑은 죽을 길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와 같으니라’고 번역된 것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의 각주 1을 참조하라.

유사한 발음이 난다. 사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알라**(*'ayyalah*)는 본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아닌 들사슴을 의미하지만, 시인이 의도적으로 들을 의미하는 **사데**를 또다시 첨가함으로써 이 역시 신의 별칭을 생각나게 하는 음가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의도성은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서열관계 개념을 배제하고자 함을 드러낸다. 저자는 작품을 통해 철저하게 어떠한 권위와 상하구조가 배제된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 낸 어떠한 편견 보다 훨씬 근본적이며 가치 있는 개념이다. 저자는 8장 6-7절에서 자신의 사랑에 관한 생각을 확고하게 천명한다: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7b절). 사랑의 영원성과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재물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 언급은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혼을 위해 여인을 맞을 때에 남성이 여성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다(창 24:52-53; 34:12; 출 22:16; 삼하 18:25).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관습이라기보다는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결혼 풍습이다.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다. 그런데 이 시인은 강력한 어조로 주인공 여성의 입을 빌어 돈으로 사랑을 사는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비난한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단어 선택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한 가지 재미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시인은 이 구절과 8장 1절에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한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1절에서 여성은 연인에게 공공연하게 친근함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구절에서는 형제가 아닌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한다면 세상은 그녀를 ‘업신여길’ 것이다. ‘업신여기다’로 번역된 동사(*bwz*)는 바로 7절에서 ‘멸시하다’로 번역된 동

사와 동일하다. 게다가 7절에서 이 동사는 절대형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보즈 야부주, *bôz yābûzû*) 그 의미가 1절에서 보다 훨씬 강조되어 있다.²¹⁾ 이 두 구절에서 경멸의 대상은 서로 반전을 이룬다. 사회적 통념 하에서 결혼하지 않은 연인의 애정표현(사랑)은 경멸의 대상이 되지만, 반면 권위가 배제된 사랑의 개념 하에서는 사회적 통념이 경멸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 반전을 통한 지혜

아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구약성경의 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정경 속에 포함되어 수천 년을 거룩한 책으로 읽혀 왔다. 지금까지의 성서학자들은 아가가 가지는 특성과 이 책이 포함되어 있는 정경이라는 배경이 주는 모순 때문에 수많은 논의를 제기해 왔다. 본 연구는 아가가 본래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사랑 노래 모음집으로 저작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목적으로, 다분히 종교적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의 작품임을 주장하였다. 이 저자의 목적은 기존의 신학적 전통에 대한 반전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전을 통해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책은 어떤 장르로 구분할 수 있을까? 비종교적 언어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장르는 지혜문학이다. 곧 본 저자는 아가가 큰 범주의 지혜전승에 속한다고 제시한다.

구약성경 안에서 지혜문학은 욱기, 잠언, 전도서 세 권으로 규정해 왔다. 이 세 권의 책을 지혜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몇 가지 내용상의 특

21) 부정사 절대형은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형동사의 앞이나 뒤에 놓인다. 이와 같은 구문의 번역은 문맥에 따라 변하지만, 종종 '틀림없이, 확실히, 정말, 참으로' 등과 같이 부사로 해석할 수 있다. 8장 7절의 개역 개정 번역에서 '오리려'는 아마도 이를 번역한 듯하다.

성 때문이다.²²⁾ 첫째, 지혜문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주된 관심이 지혜에 대한 것이다. 둘째, 지혜문학에는 오경, 예언서, 묵시문학 등 소위 비지혜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나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약신앙이나 구원사 같은 주제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주요한 주제인데 비해서 지혜문학은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셋째, 지혜문학에서는 인간의 이성, 경험, 사색 등을 통하여 얻어진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내용상의 특성 때문에 과거 학자들은 지혜문학과 비지혜문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1960년 대 이후, 학자들은 비지혜문학 영역 안에서도 지혜전승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²³⁾ 아가를 다른 장르보다는 지혜문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있다.²⁴⁾ 특히 아가에 덧붙여진 포제에서 아가를 솔로몬과 연관 짓는다는 것은 아가가 히브리 지혜전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⁵⁾ 아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외경 지혜문학 중 하나인 집회서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학자들은 지적한다.²⁶⁾ 잠언 5장과 유사한 이미지들을 아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잠언 5장은 부도덕한 여인과 그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5장 15-19절에서 드러나는 온전히 자신의 아내와 즐겁게 살기 위한 긍정적인 촉구, 그리고 그녀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성적 기쁨에 대한 긍정적인 촉구는 아가의 이미지와 매우 유

22)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경」(서울: 동연, 2009), 15-16.

23) 윗글, 35-41. 특별히 각주들을 참조할 것.

24) G. Lloyd Carr, *The Song of Solomo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84), 50-52; R. J. Clifford,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8), 157-165; T. Longman III, *Song of Song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2001), 127-128.

25) K. L. Sparks, "The Song of Songs: Wisdom for Young Jewish Women," *CBQ* 70 (2008), 284.

26) 집회서 24장 13-19절은 지혜가 스스로를 찬미하는 노래 중에 나타난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휘는 아가의 어휘와 매우 유사하며, 특별히 아가 4장 12-17절의 비유적 표현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크는 집회서 저자가 아가를 지혜문학이라고 이해했던 증거라고 제시한다. 래리 L. 라이크 저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이유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46-147.

사하다.

이렇듯 아가를 지혜문학적 범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혜문학이 다른 구약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 예를 들어 구원사, 계약에 관련된 것, 역사를 통한 신앙고백 등과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우주 질서와 원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은 아가를 지혜문학으로 이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아가를 지혜문학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또 한 가지의 증거는 바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방식에 있다. 즉, 논쟁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쟁적인 방식은 지혜문학 안에서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식 중 하나이다. 전도서, 잠언, 욥기의 편집자는 하나의 관점과 그와 반대되는 관점을 나란히 둬으로써 지혜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 욥기의 경우에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중심 주제를 다루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관인 인과응보의 사상을 담고 있다. 즉,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신앙관을 중심으로 욥과 친구들은 각자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욥기의 저자 혹은 편집저자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앙과는 다른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역사의 신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또한 잠언의 경우에도 간음의 성적인 위협과 더불어 지혜로운 여인의 사랑이 함께 나란히 등장함으로써 저자 혹은 편집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장르상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책인 요나서도 역시 지혜 전승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책 중 하나이다.²⁷⁾ 요나서 역시도 요나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점에 대해 반하는 신학을 대변하는 책으로 역시 지혜 장르와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 또한

27) 천사무엘, 엿글, 80.

이 모든 책들에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이해를 바로 잡는 데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이스라엘의 지혜사상이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욥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주의 창조자로서 드러냄으로써 그의 일하심의 신비함과 불가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요나서는 이 모든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가 모든 피조물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듯 지혜 장르로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창조신앙임을 알 수 있다.

아가를 통해서도 논쟁적인 방식이 전통에 대한 반전이라는 도구를 통해 드러난다. 아가에는 사랑에 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그룹이 존재한다. 첫 번째 그룹에는 주인공에 해당되는 두 연인(특히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이 속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예루살렘 딸들, 형제들, 과수꾼들 등이 포함된다.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랑관을 보여주며, 반면 첫 번째 그룹은 이에 반하는 사랑관을 노래한다. 첫 번째 그룹의 인물이 이 시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전통적인 사고는 이들의 반전적인 사고에 의해 전복되고 수정된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사랑관은 연인, 특별히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태어난다. 반전적인 사랑의 개념은 역시 창조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가를 이루고 있는 창조신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창조신학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욥기, 전도서, 요나서가 창조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각각 인과응보에 대해 비판하고 섭리의 확신에 대해 비판하며, 선택된 민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는 남성과 여성이 창조되던 그 때

28) L. G. Perdue,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20.

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찬양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 찬양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관계 안의 서열을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오로지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뿌리가 같은 존재이며, 그렇기에 그 둘의 결합은 가장 완전한 것이며 동등한 것이라는 찬양이다. 결국 아가는 단순하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가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도구삼아 인간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5. 참고문헌

- 래리 L. 라이크 지음, 이유미 옮김.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클라인즈, D. J. A, 김병하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이데올로기 성서비평」.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경」. 서울: 동연, 2009.
- Bernat, D. “Biblical Waşfs Beyond Song of Songs.” *JSOT* 28.3 (2004), 327-349.
- Brenner, A., ed. *A Feminist Companion to the Song of So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Caron, G., ed. *Woman Also Journeyed With Him: Feminist Perspectives in the Bible*.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Carr, D. “Gender and the Shaping of Desire in the Song of Songs and Its Interpretation,” *JBL* 119/2 (2000), 233-248.
- Carr, G. Lloyd. *The Song of Solomon: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84.
- Clifford, R. J.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8.

- Clines, D. J. A. *Interested Parties: The Ideology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Hebrew Bible*. JSOT Sup. series 20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Dietrich, M. and I. Kittsieper, eds., *‘Und Mose schrieb dieses Lied auf’: Studien Zum Alten Testament und zum alten Orient: Festschrift für Oswald Loretz zur Bollendung seines 70. Münster: Ugarit-Verlag, 1998.*
- Falk, M. *Love Lyrics in the Bible*. Sheffield: Almond, 1982.
- Fox, M. V.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Fredericks, D. C. and D.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0.
- Grossberg, D. “Nature, Humanity, and Love in Song of Songs.” *Interpretation* (2005), 229-242.
- Johnston, G. H. “The Enigmatic Genre and Structure of the Song of Songs, Parts 1-3.” *Bibliotheca Sacra* 166 (2009), 36-52, 163-180, 289-305.
- Keel, O.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 Kramer, S. N. *The Sacred Marriage Rite: Aspects of Faith, Myth, and Ritual in Ancient Sum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9.
- LaCocque, A. Romance, *She Wrote: A Hermeneutical Essay on Song of Songs*.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 Longman III, T. *Song of Song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2001.
- Meer, W. van der and J. C. de Moor, eds. *The Structural Analysis of Biblical and Canaanite Poetry*. Sheffield: JSOT Press, 1988.
- Munro, J. M. *Spikenard and Saffron: The Imagery of the Song of Songs*.

-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Perdue, L. G. *Wisdom and Creation: The Theology of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1994.
- Pope, M. H.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77.
- Raabe, P. *Psalm Structures: A Study of Psalms with Refrains*. Sheffield: JSOT
Press, 1990.
- Sparks, K. L.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2005.
- _____, “The Song of Songs: Wisdom for Young Jewish Women,”
CBQ 70 (2008), 277-299.
- Walsh, C. E. *Exquisite Desire: Religion, the Erotic, and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2000.
- Watson, W.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SOT
Supp. 26. Sheffield: JSOT Press, 1984.
- White, J. B. *A Study of the Language of Love in the Song of Songs and
Ancient Egyptian Love Poetry*. Missoula, MT: Scholars, 1978.

검색어

아가

반전신학

성

권위/서열

창조질서

The Subversive Theology in the Song of Songs

You-Mee Lee

Lecturer at Luther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Ph. D.

Although the Song of Songs(SoS) is included in the canon, the book is filled with the erotic imagery, while NOT mentioning God and theological themes. Because of this, allegorical interpretation has dominated the reading of the SoS for ages. Although allegorical interpretation has helped to read the SoS as a religious book, it ignored what the text says and made interpretations arbitrary. Against allegorical approach, literal approaches read the erotic language of the SoS literally. But they soon came to face the problem of the canonicity.

This thesis attempts to overcome these kinds of methodological faults. The SoS was a religious one originally. At the same time, it is secular love song(not allegory).

First of all, I maintains that the SoS is not an anthology but a love song which has an author(poet). Through a literary device, which is 'refrain', I show the unity of the SoS.

The SoS apparently sings the human love. But the way of expression about love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books in the canon. The poet attempts the reversal of the traditional views, and then suggests a new theological interpretation.

The Old Testament was surely written in patriarchal circumstances. So the Old Testament tradition portrays the man-woman relationship as a hierarchical structure. And that relationship is applied to God-

www.kci.go.kr

human(Israel) relationship(esp. the Prophets). The human love and sex/gender motifs were used for the religious motifs.

But the poet intended to demythologize human love and attempted ‘a new theological work.’ He reinterpreted love, body, gender/sex, and authority in a subversive way. He ultimately recovered the meaning of the essential human love and sex/gender.

The SoS is categorized as wisdom literature. It does not deal with the traditional theological themes, but is concerned with the universal order and principle(creation theology).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wisdom literature. And its subversive feature is analogous with the Job and Ecclesiastes in the wisdom literature. Finally, The SoS is simply not a song of human love. Rather, it deals with a profound theological thought about the human-beings through the love theme.

Keywords

Song of Songs

Subversive theology

Sexuality

Hierarchy

Order of Creation

- 투고일: 2014년 4월 01일
-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06일